

역사를 이루는 '심해' 같은 민중의 삶

페르낭 브로델의 삶과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전6권)

주경철

서울대 교수 · 서양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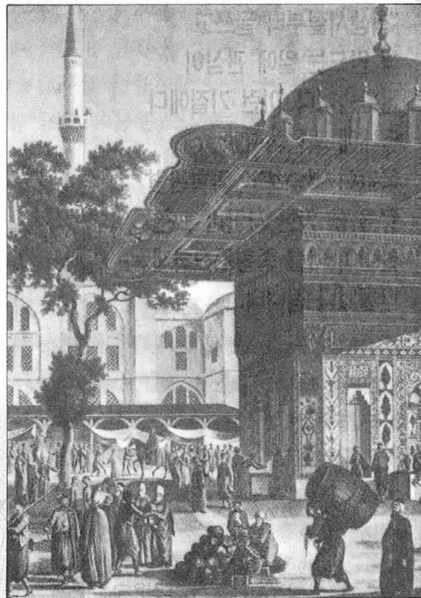
브로델은 20세기 후반의 역사학계에서 분명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중의 한 명이다. 석사과정에서 그의 저작을 접해본 필자는 언젠가 이 노학자를 직접 만나 대화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필자가 프랑스로 유학을 간 직후인 1985년에 브로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그를 직접 만나볼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되었다. 그와의 만남은 이제 고전으로 남은 저작들,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유작이 된 미완성 대작 《프랑스의 정체성》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사후 10년 기념으로 몇권의 전기와 간행됨으로써 '인간적인' 면모를 접하게 되었고, 어쩌면 사소할 지도 모를 면모를 통해 그의 저작들을 더 세심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뒤늦게 찾아온 역사학의 열정

브로델은 1902년 로렌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일곱살부터 파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의 생활이라야 몇년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은 평생 그의 뇌리에 원형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마을에서의 삶은 기억할 수도 없는 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그곳 사람들은 언제까지라도 변치 않을 듯한 순박한 시골 정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기차가 들어와 있었다. 마을 안에서는 당나귀를 이용해서 짐을 부리는 반면 마을 밖에서는 기차를 통해 대도시의 경제와 연결되는 모습을 통해 그는 산업자본주의의 시간과 태고적부터 이어져온 무변화의 시간이 공존한다는 사고를 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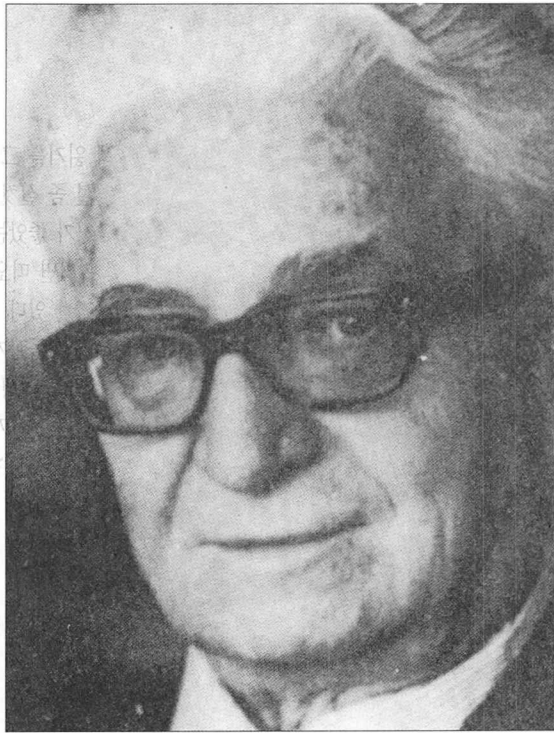
그의 사론(史論)을 이야기하면서 흔히 '장기지속'의 시간, 콩중크튀르(conjoncture)의 시간, 사건사(事件史)의 시간이 층위를 이루고 있다는 표현을 하곤 한다. 때로는 상당히 복잡하고 모호한 여러 개념들을 동원하여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애초에 그런 생각들의 단초는 아주 단순한 데 있지 않았을까?

이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흥미로운 점의



우리의 눈에는 끊임없이 찰랑대는 파도와 해류가 보이나, 사실 바닷물의 대부분은 몇천미터 아래 심해의 물이다. 역사도 마찬가지다. 전쟁과 혁명같은 정치적 대사건보다 민중들의 자잘한 일상생활이 역사의 거대한 심해를 이룬다. 브로델의 핵심사상이다.

이stanbul에 있는 토프 하네의 광장과 세정소 (페르낭 브로델 (1902 - 1985))



하나 브로델이 제자를 받을 때에도 그의 고향을 물어봐서 농촌 출신에게는 농업사를 권하고 도시 출신이면 상업사와 같은 주제를 권했다는 점인데, 뭔가 어수룩한 듯 하면서도 사실 대단히 효과적인 지도 방식인 듯하다. 누구든 자신이 성장하며 가지게 된 원형적인 틀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리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대역사가의 짧은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은 어땠을까? 어릴 적부터 빛나는 혜안을 자랑하는 천재 소년이었을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의 원래 꿈은 의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그것을 포기하고, 단지 무시무시하고 폭압적인 아버지(중학교 수학생장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어서 어린 브로델의 기억은 아버지의 매질을 피해 개집 속으로 숨는 것과 같은 나쁜 인상 뿐이다)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기 위해 거의 아무렇게나 역사학과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역사학에 대한 "열정은 뒤늦게 찾아왔다."

그의 이력은 확실히 전형적인 엘리트의 코스와는 다르다. 교사자격시험 성적이 과히 좋지 않았던지 당시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소르본느 대학에 강사 자리를 얻고 난 후에는 우연히 신생 상파울루 대학의 교수 자리가 나서 그곳의

교수가 되었다(당시 아무도 이렇게 먼 곳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별 전망이 없는 젊은 사람들만이 지원하였다) 하는데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레비-스트로스도 끼여 있다.

아마도 브로델의 내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렇게 이질적인 지역으로의 여행이 아니었을까? 아마 그가 파리의 명문 대학교에 일찍부터 자리잡고 탄탄 대로를 걸었다면 그렇게 독창적인 사고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생활해본 결과 "유럽을 보더라도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너머의 반대 방향에서 본다"든지, 브라질 내지의 열대림에 자리잡고 있는 원시적인 문명들을 만나보는 것과 같은 흔치 않은 경험을 통해 독특한 문명관 및 역사관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사람이 크는 데에는 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과 같은 직접적인 체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일상사의 거대한 부동의 층 이해

20세기를 살아온 사람 거개가 그렇듯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는 물론 세계대전이다. 1차대전 때에는 점령군 장교로서 폐허화된 독일 지역을 시찰하는 정도로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2차대전에서는 포병으로 참전했다가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 포로 생활

은 비교적 자유로운 것이어서 마인츠 대학 도서관의 독일 서적들을 탐독할 수 있었고, 국가박사 학위논문이 될 그의 주저(主著) 《지중해》를 이 곳에서 집필하였다.

여기에서 그의 남다른 재능 하나가 빛을 발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늘 자랑해마지 않는 엄청난 기억력이다. 2천5백 페이지 정도의 대작이 될 이 논문을 쓰는 데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파리의 집에 남겨놓고 온 상태이고, 단지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초고 상태의 논문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료 전부를 암기하고 있어서 머리속의 이 자료를 이용하여 몇번이고 논문을 쓰고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마쳤다. 나중에 그가 인용한 사실들을 자료와 대조한 결과 연도나 날짜까지 정확히 일치하였다고 한다.

그의 사관의 마지막 완성이 독일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이루어진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는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종잡을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해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 같다. 그의 사관을 이야기하면서 흔히 인용하는 바다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자.

바다의 제일 위의 표면에는 끊임없이 찰랑대는 파도가 있고, 그 밑에는 해류의 흐름이 있어서 비교적 느린 속도로 자기 길을 따라 흘러간다. 다시 이보다 더 밑의 층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깊은 물이 있다. 우리의 눈에는 찰랑대는 파도나 해류 정도가 보일

지구촌 성장의 그늘을 찾아

로버트 케이플런의 《지구의 변경지대》를 읽고

김남일 · 소설가

지 모르나, 사실 바닷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몇백 미터, 심지어는 몇천 미터나 되는 거대한 심해의 물이다.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일반 역사의 흐름에서는 전쟁·혁명과 같은 정치적 대사건만 눈에 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민중들이 영위하는 삶에서는 그런 대사건들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대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농사짓고, 언제나 비슷한 의복을 지어입고 비슷한 음식을 먹으며 땅에 발 붙이고 살아왔다. 한마디로 이들의 삶은 거의 변화없이 오랜 기간 지속된다.

인간의 살아온 삶을 이해한다고 할 때 변화의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변화할 줄 모르는 거대한 층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야 그 위층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도 정당한 제자리를 부여하며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거대한 부동의 층이라는 것은 다음아닌 민중들의 일상생활이라는 영역이다. 이 영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측면들, 즉 인구·음식·의복·주택 등을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역사의 지평을 널리 확장한 것이야말로 브로델의 가장 중요한 공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사상을 요약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느 작곡가의 음악 작품을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한다 해도 그 음악을 대신할 수는 없다.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브로델의 저작은 결코 이론 그 자체를 위한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다양한 모습을 극히 풍부하게 보여준다는 점이 독특한 장점이기 때문이다.

그의 저작에 익숙지 않은 독자라면 어리둥절할 정도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렇게 짜여진 화려한 브로델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어느 낯선 외국을 여행하는 것처럼 어딘가 낯선 듯하면서도 사람 사는 것이다 그렇듯이 결국 우리와 비슷하다는 느낌도 받는다. 약간의 준비를 하고 여유 있게 그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고생은 되더라도 유익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

짜치/A5신/각 900면 내외/각 10,000원 내외

21세기가 코앞에 닥쳐왔다. 많은 이들이 축제를 준비한다. 현재의 기술문명 수준으로 볼 때, 인간은 아마 인간을 복제하여 새 천년의 첫날을 맞이할지 모른다. 그러나 진단이 꼭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발전과 성장은 필요악처럼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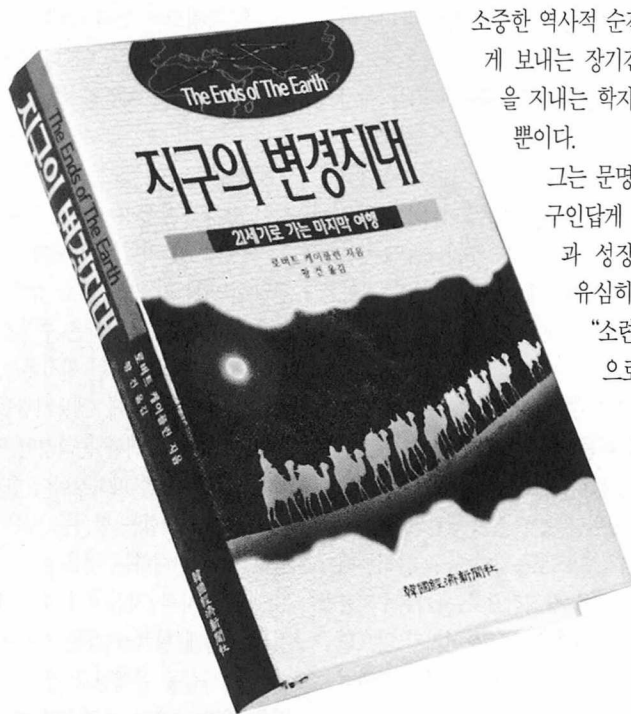
빈부격차, 환경파괴, 새로운 질병의 만연, 인구의 도시집중, 농촌의 황폐화 등은 이미 고전적인 범주에 속한다. 그것들과는 차원부터 다른, 도무지 21세기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비합리적 '파멸의 요소'들까지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케이플런은 지구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면서 이 음울한 진단을 확인한다. 아직도 인간의 존엄성이 휴지처럼 구겨지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인류는 과연 21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일까?

서아프리카에서는 국민국가 시대 이전의 전근대적 무질서가 새롭게 번지고 있다. 군대와 범죄집단을 가려내는 일은 불가능하며, 차라리 냉전 시절이 행복했던 것처럼 보인다. 소련의 위협이 제거된 지금 서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덕적 지배력이나 공적 생활의 조직력으로서나 이에 존재하지 않는다.

“시에라리온이 국가입니까?”

그는 이렇게 묻는다.



21세기의 진단이 꼭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빈부격차, 환경파괴,

새로운 질병의 만연 등

비합리적인 '파멸의 요소'가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다.

저자는 지구 구석구석, 인간의

존엄성이 휴지처럼 구겨지는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이 음울한

진단을 확인한다.

이 질문은 소련의 붕괴 이후 '탄생'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물론 터키나 이집트, 이란처럼 국가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정비된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민족과 종교 문제로 넘어가면 그 나라들 또한 '합리적 이성'의 세력권 바깥에 존재한다. 적어도 미국인 케이플런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그는 이란의 한 도시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만난다. 그렇지만 그들은 “석유자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받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연구활동을 진행하면서 소중한 역사적 순간들을 헛되게 보내는 장기간의 안식년을 지내는 학자들과 같을” 뿐이다.

그는 문명에 지친 서구인답게 특히 발전과 성장의 그늘을 유심히 관찰한다. “소련은 공식적으로는 죽었지



김남일씨.

만, 그 시체는 수십년 동안 썩으면서 시민적·정치적·환경적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인도의 '라시계곡학교'에서 유일한 희망을 발견한다. 크리쉬나무르티가 사막에 세운 그 학교는 생태계 부활이 문화부흥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다시 태국에 간 그는 창궐하는 에이즈와 방콕의 엄청난 교통공해를 목격한다. 거기서 킬링필드의 유산이 남아 있는 캄보디아로 넘어가면?

그렇다. 모순이다. 세계 인구의 30%가 아예 아무런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며, 50%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케이플런은 결론을 내린다.

“가슴이 아프지만 이런 비참한 처지도 역시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한국은 여러 나라가 부러워하는 모델로 제시된다. 그러나 책을 다 읽고 났을 때, 누구도 한국이 기술과 민주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커다란 발전으로 자만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그의 경고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한국경제신문/A5신/580면/12,000원